

# “올 겨울 추위를 잘 이기세요”

## 본지 불우이웃돕기 實踐 현장 사연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물품과 현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고남석 씨의 경우 포천시 신음동에서 제일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입장객 1인당 100원씩을 적립해 모은 금액을 매월 40~50만원씩 전달하다가 제일사우나를 정리하고 수원시에 사업장을 확장해 오셨다. 그런데 제일사우나를 정리하면서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2만5천

원을 통장에 송금하여 제일사우나를 찾은 고객들의 정성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현 조사위원회 고문이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20만원, 강수동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이사장이 역시 자동이체로 매월 20만원, 권혁주 포천제일교회 담임목사, 한명숙 청풍삼계탕 대표가 매월 10만원, 박노현 용아섬유주

식회사 대표가 매월 10만원씩 전달하고 있다. 또 박병식 이동맛갈비 대표가 매월 5만원, 강옥자 늘봄 꽃 화원 대표가 2만원씩 매월 자동이체로 성금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달에는 특별히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서 원신마트를 경영하는 포천신문 주부명에게 지난달 광복준 영중면지부장이 1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유재철씨가 1만원을 자동이체로 기탁했다.

또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김한성 회장 등 회원들이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이체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과 물품은 포천시 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접 현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김종현 조사위원회 고문이 11월21일 포천시 어룡1통에서 홀로 살고 있는 심정순 할머니에게 현

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하고 추운 겨울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격려했다. 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혼자 살고 김옥자 할머니를 방문해 역시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하고 추운 겨울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격려했다. 또 최영선 할아버지에 게도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하고 추운 겨울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격려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조사위원회 김종현 고문이 소흘읍 송우리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옥자 할머니(72)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하고 격려했고 있다.



본지 조사위원회 김종현 고문이 소흘읍 송우리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최영선 할아버지(61)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하고 격려했고 있다.



본지 조사위원회 김종현 고문이 포천시 어룡동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심정순 할머니(71)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하고 격려했고 있다.

###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장

### 어머니의 무덤

은 채 얼어죽고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 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점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 날 얼마나 추웠어요. 은혜로우신 어머니.....그림습니다.....자랑스럽습니다....나니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청년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위해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 눈물을 머금으면서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하리를 꾸부러 아이를 끌어 앉

(문의 011-342-5834)

# 200여명 나서 배추 4천700포기 김장

## 포천시 비인가시설 600여명 겨울 식량 제공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포천관내 30여개 시설 600여명이 겨우내 먹게 될 김장을 담는 사랑의 손길이 계속됐다. 11월22일부터 이틀간 포천시 군내면 소재 승리요양병원에서 실시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김장을 담았다. 이번 김장담그기는 포천시의회 김명자 의원과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연합회가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승리요양병원 박재환 원장이

배추 4천700포기를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발에 있는 배추를 승리요양병원까지 나르는 것은 포천소방서 직원들이 책임졌다. 24시간 근무후 피곤한 몸이지만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추 4천700포기를 실어 날랐다고 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계속 배추를 공급하고 이제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려줄 인원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

성의용소방대, 여성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녹색어머니회, 시민안전봉사대원과 포천의용소방대, 포천 자율방범대 등 연인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양념은 포천관내 6개 단위 농협에서 적극 지원했으며 이렇게 서로 사랑과 정성을 모아 담은 김장김치는 관내 50개 비인가 시설에 필요한 만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지도자들의 부인들도 참석해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에 의미를 더



포천소방서 직원들이 김장할 배추를 나르고 있다.

했다. "비인가 시설 연합회 박장진 회장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활발해져 포천사회가 밝고 희망 가득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승리요양병원 박재환 원장은 "매년 4~5천 포기씩 김장김치를 담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며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명자 포천시의회 의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건네는 김순임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 시민안전봉사대 등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비록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풍요롭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해 물품으로 봉사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북대학 작업치료과(학과장 양경희 교수) 쌀 2상자 >포천예총(회장 이희용) 음료수 1박스 >자율방범대연합회(대장 임충남) 인절미 2, 소주 3박스, 커피, 녹차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손병락) 빵과 음료수 >포천시 재단관리과 커피, 녹차, 컵 >포천시 사회복지과 쌍화탕1박스 >포천시 가족여성과 쌀 3상자 >포천시 문화체육과 음료수 1박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승리병원 박재환 원장이 제공한 배추 4천700포기를 담아 포천시 관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600여명이 올 겨울에 양식으로 사용할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 시인의窓

#### 파도

김 송 배(한국문인협회시분과회장)

너는  
운밤을  
잔잔한 음악이었다가  
영혼을 날라드는 메아리였다가  
문득  
그 사람의 아픈 기억  
밀어 올리는  
잔인한 바람이었다가  
그토록  
너의 부드러운 몸짓에  
흔들려 버린 물새를 내려질  
일몰쯤  
하얗게 분노하는 나의 분신이었다가  
너는 운밤을  
사랑하는 사람의 흐느낌이었다가  
아름답게 부서진 울음이었다가  
언제나 아이,  
분노였다가  
노래였다가

<김상노트>

대개 사람들은 빵으로 살아가는 줄 안다. 그러나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사랑은 생명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며 인간이 노래하는 고귀한 가치다. 사랑은 생명이 복용하는 약 중에서 공통적

으로 통하는 유일한 약이다. 사랑은 살에서 빛어지는 아침 이슬이다. 사랑의 물은 무쇠를 달구며,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불을 약속한다. 결국 어떤 날에 사랑은 낙엽의 꽃상여가 된다. 안 익 수(시인)

# 자랑할만한 내실 있는 경로당

## 포천시 군내면 '경로당 비교평가' 실시

포천시 군내면사무소는 11월27일 노인회 임원과 관내 경로당 회장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속 및 개·보수를 거친 경로당을 비롯한 22곳의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상호 비교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찰은 각 경로당별 내부 및 외부 청결상태, 당번제 실시 등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은 바로잡고 잘 생긴 능동적으로 상호 수용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후엔 군내면 노인회장은 앞

으로 이같은 비교시찰을 정착시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내면 뿐 아니라 포천시에서 자랑할 만한 내실있는 경로당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내면은 비교시찰에 참여한 노인회 임원과 경로당 회장들로부터 각종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봉훈 군내면장은 "마을어르신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생생하게 듣고 거론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개선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포천시 군내면사무소는 11월27일 노인회 임원과 관내 경로당 회장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속 및 개·보수를 거친 경로당을 비롯한 22곳의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상호 비교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편지 및 경로당 발전을 위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랑의 연탄 · 김장 나누기 행사’

## 포천시 영북면주민자치위원회 주관 3개 단체 참여

포천시 영북면사무소(면장 배상택)는 11월25일 행복한 삶을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영북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수홍)가 주관하고 영북면기수연합회(회장 김재영)와 영북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명숙), 육이상조희(회장 최남규)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3개 단체의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김치 10kg 150상자, 연탄 16,000장, 10만원 상당 난방유류권 20장 등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영북면 대화산리에 소재한 승화식당(대표 김백근)은 양념 등 김장재료와 장소를 제공했으며 영북면기수연합회 육이상조희에서 배추 1,000포기를 구입하여 지난 11



포천시 영북면사무소(면장 배상택)는 11월25일 행복한 삶을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를 계기로 우리 시민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손길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수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